

#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와 폴 드만, 들뢰즈, 보르헤스

김 지 영  
(부산가톨릭대)

## I. 서론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번역가의 과제」(“The Task of the Translator”)는 독일어 원 텍스트의 난해함에 각국어로 번역된 텍스트의 난해함이 겹쳐져서, 벤야민에 접근하는 독자들에게 진정 텍스트의 의미를 어떻게 번역해야할지 묻게 하는, 접근하기 어려운 텍스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나 이 텍스트의 중심어라고도 할 수 있는 ‘의도’, ‘번역가능성’, ‘순수 언어’와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이는 특히나 포스트모더니즘 내지 해체주의의 학문적 세례를 받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 용어들에서 초월적 뉘앙스를 빼어버리는가를 과제로 던져준다.

「번역가의 과제」는 벤야민이 강조하는 ‘의도’를 용이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을 던져줌과 동시에 짓밟는다. ‘의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원전이 가지고 있는 ‘번역가능성’, 즉 ‘의도’를 원전의 작가의 의도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용이한 해석으로, 번역은 원전 작가의 의도를 가장 충실히 재현해내는 것이 좋은 번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나오기도 전에 벤야민에 의해 저지당한다. 벤야민

은 첫 문장부터 수용자, 즉 독자를 뺀으로써 ‘인간적인’ 해석을 차단한다. 특히나 텍스트 곳곳에 강조되는 ‘의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번역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번역가가 해야 할 과제로서 원전의 의도를 표현하는 일은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둘째, 원전의 의도를 신의 언어로 해석하고픈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번역의 원형 내지는 이상으로 성경이 제시될 때, ‘순수 언어’를 언어가 분화했던 분기점인 바벨탑 이전의 언어라고 읽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의도를 모든 세상의 언어들을 초월하는 존재로 상정하는 것이어서 언어 이론으로 실행가능하지 않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의도이다.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해석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번째 해석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벤야민의 텍스트와 그에 대한 폴 드만(Paul De Man)의 해석을 살펴본 다음, 그 해석에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순수 차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뻐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Pierre Menard, Author of the *Quixote*”)를 들뢰즈의 관점과 비교하여 읽어봄으로써 번역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보르헤스의 텍스트를 벤야민과 연결시킴으로써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가 던지는 문제, 즉 이상적인 번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 II 번역가의 과제

일반적으로 좋은 번역을 ‘원작에 충실한 번역’이나 ‘원작의 정신을 담고 있는 번역’으로 생각한다면,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의 첫 단락이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첫 단락을 여는 문장은 예술 작품의 감상에 있어 수용자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상적인’ 수용자를 상정하는 것은 해롭기조차 하다고 쓰고 있다. 두 번째 단락 역시 충격적인데, 번역의

본질은 원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문학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가가 마치 시인인 것처럼 하여야 재생할 수 있는 “헤아릴 길 없고 신비롭고 ‘시적인’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 역시 비본질적 내용의 부정확한 전달이며, 열등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원작의 정보도, 내용도 아니라면 벤야민이 주장하는 번역은 무엇을 전달하는가? 「번역가의 과제」가 제시하는 답은 ‘의도’ 또는 ‘순수 언어’이다. 벤야민은 번역은 원작의 의도를 전달하며 그것은 바로 순수 언어라고 말한다. 보통 의도라 함은 원작의 저자의 의도이거나 작품의 의도일진대, 벤야민이 말하는 의도는 작가나 작품과 관계가 없고 언어와 관계가 있는 순수 언어이다. 그 의도와 순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가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를 읽는 독자들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우선 벤야민은 원작에 번역가의 존재와는 별도로 ‘번역가능성’이라는 자질을 부여한다.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가 아닌가는 우발적인 일이지만, 원작이 번역을 요청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마치 잊을 수 없는 순간의 본질이 잊지 못함을 요구할 때는 설사 인간이 기억을 하지 못해도 신의 기억에 의해 잊지 못함을 충족시키듯, 하나의 작품은 실제로 번역을 하는 번역가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작품 안에 번역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진다. 그러나 이는 그 작품이 반드시 번역되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 안에 내재한 특정한 의미(significance)가 번역가능성 안에서 표명되는 것을 말한다. 그 특정한 의미는 언어 상호간의 관계, 즉 원작과 번역의 언어의 관계이며, 번역가능성에 의해 원작과 번역은 불가결한 결합을 이룬다. 따라서 번역은 언어 간의 가장 친밀한 상호 관계, 근친성(kinship)이라고 할 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들은 역사적인 맥락과는 별도로 선형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번역이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친성은 결코 원작의 언어와 번역의 언어가 닮았다는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벤야민은 원작과 번역이 동시대가 아님을 강조하는데, 번역이 원작을 뒤따라오므로 번역은 원작의 사후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작을 매번 새롭게 갱신하는 번역을 통해서 원작은 사후 삶을 지속한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결실이 많은 역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대한 문학작품은 번역에 의한 완전한 변신을 통해서 영생을 이어나간다. 즉, 원작에 역사적 과정이 합쳐진 것이 번역이라는 것이다. 번역은 원작의 낯선 언어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시에 번역의 언어가 태어나는 고통으로 채워진 문학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작 언어와 번역 언어의 근친성은 이 둘의 유사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 번역이 원작과 똑같기를 바라다면 어떠한 변신도, 갱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번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작과 번역이 서로의 닻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벤야민은 언어들의 근친성이 각 언어의 바탕을 이루는 의도에 있다고 말한다. 이 의도는 각각의 언어가 개별적으로는 실현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어 보충할 때 전체적으로만 실현되는 의도이며 이를 벤야민은 순수 언어라고 부른다.

의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벤야민은 의도된 객체와 의도의 양태를 구별한다. 예컨대 독일어의 ‘Brot’와 프랑스어의 ‘pain’은 빵이라는 의도된 객체는 같지만 그 단어가 각기 그 나라 국민에게 환기하는 의도의 양태는 다르다. 따라서 의도된 객체는 동일하지만 의도의 양태는 충돌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도의 양태들의 끊임없는 유동 속에서 의미가 탄생되는 것이며, 그 다양한 의도의 양태들이 조화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을 순수 언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순간까지, 즉 “언어들의 역사의 메시아적 종말”<sup>1)</sup>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영생에 불을 붙이며 언어를 영구히 새롭게 하는 것이 번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은 언어들의 이질성—즉 서로 다른 언어들—을 받아들하려고 애쓰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이 이질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번역은 그 내부에 다시 번역할 수 없는 핵, 즉 ‘번역불가능성’을 포함한다. 그것이 번역 불가능한 이유는 원작과 번역에 있어 내용과 언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작에서는 내용과 언어가 과일과 껍질처럼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 번역에서는 언어가 내용을, 마치 풍성한 주름들이 겹쳐있는 왕의 법복처럼 감싸고 있다. 이는 번역의 언어가 원래보다 더욱 고풍되어 내용과 맞지 않게 고압적이고 이질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열이

1) W. Benjamin,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Harry Zohn, 1968, p.74.

번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동시에 쓸 데 없이 과잉이 되게도 한다. 요컨대 번역은 언어들의 총체성인 의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번역가능성을 본질로 가지는 한편, 언어들의 이질성과 번역 언어의 과잉으로 말미암은 번역불가능성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의 유희는 전통적인 번역 이론인 ‘충실성’과 ‘자유’를 벤야민이 나름대로 전유한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번역 이론에서 충실성과 자유는 글자 그대로의 뜻에 충실한 직역과 거기에서 자유로운 의역의 대립을 나타내지만, 벤야민의 번역 이론에서는 둘 다 순수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우선 벤야민은 충실성을 원작의 의미의 재생산으로 보지 않는다. 벤야민은 더욱 더 철저한 충실성, 즉 통사법 자체를 그대로 바꾸지 않고 번역하는 글자 그대로의 번역을 추구하는데, 이는 의미의 재생산 이론과 독해가능성을 위협한다. 원작의 의미를 재생산하는 번역은 나쁜 번역이다. 오히려 번역의 모델은 깨어진 파편들을 모두 모아 그릇을 완성하는 것인데, 원작과 번역은 둘 다 더 상위의 언어인 그릇의 파편이 된다. 원작의 언어와 이후에 오는 모든 번역들의 언어는 그릇의 파편이듯, 순수 언어의 파편이다. 이 파편들이 모여 그릇을 완성하듯 번역의 언어는 서로 보충하는 조화로서 순수 언어를, 의도를 표현한다. 한편, ‘자유’ 역시 전통적 번역이론에서는 의미의 전달을 위해 추구된 것이었지만, 벤야민은 전달되는 정보와 달리 전달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한다. 자유는 원작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번역가에게 부여된 재량권이라는 전통적 번역이론의 범위를 넘어, 표현 불가능하며 창조적인 ‘말’(Word)을 생산하는 것, 모든 정보, 모든 의미, 모든 의도가 사라지는 지층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의 과제는 자신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의 주문에 걸린 순수 언어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작품 속에 갇힌 언어를 그 작품을 재창조함으로써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번역가는 자신의 언어를 부숴야 한다. 벤야민이 참조하는 루돌프 판비츠(Rudolf Pannwitz)의 말에 의하면, 가장 좋은 독일어 번역이라 하더라도 “독일어를 힌디어, 그리스어, 영어로 전환하는 대신에 힌디어, 그리스어, 영어를 독일어로 전환하려는” 잘못된 전체 위에 있다. 즉 “번역가의 기본적 오류는 모국어가 외국어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게 하기 보다는 모국어의 상태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 그는 외국어에 의해 자신의 언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한다.”<sup>2)</sup> 원작의 외국어를 번역의 모국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외국어로 인해 번역의 모국어가 부서지고 재창조되는 것, 그것이 번역인 것이다.

벤야민이 제시하는 번역의 이미지는 원을 스치는 접선의 이미지이다. 접선은 원의 한 지점을 가볍게 스치면서, 그 한 순간의 스침에 의해 결정된 법칙에 따라 무한히 뻗어나간다. 마찬가지로 번역의 접선은 원작의 원의 한 지점, 무한히 작은 의미라는 점을 스치면서, 충실성이라는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언어적 유동 속에서 자신의 경로를 간다. 이 때 스치는 점, 즉 의미의 경중이 원작과 번역의 자질을 결정한다. 의미가 무거울수록 원작의 질은 떨어지며 번역의 들판은 황폐해져 마침내 내용의 중압감으로 번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 원작의 질이 높을수록 의미는 달아나듯 스치기만 하지만 원작의 번역가능성은 더욱 풍부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번역은 원작에 붙어있을 의미가 너무나 작고 그 느슨함이 너무나 커서 아예 번역이 불가능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경우의 전형적인 예로 벤야민은 휠더린의 소포클레스 번역을 들고 있다. 휠더린의 번역은 충실성과 자유에 있어서 번역의 원형을 보여준다. 통사법을 바꾸지 않고 글자 그대로 번역한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충실성의 기괴한(monstrous) 예가 된다. 또한 자유로 말할 것 같으면, 휠더린의 번역에서 언어들의 조화는 너무나 심오하여 언어가 의미를 스치는 것은 마치 바람이 하프를 스치는 것과 같이 가볍고 느슨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휠더린의 번역은 모든 번역에 내재한 극단적인 위험, 즉 언어의 무한한 자유로 인해 넓어진 문이 마침내 번역의 문을 닫고 번역가를 침묵으로 에워싸버리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 접선은 마침내 원을 벗어나고 의미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다 바닥없는 언어의 깊이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위험이 없는 유일한 예로서, 즉 원작의 번역가능성이 번역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로서 벤야민은 마지막 단락에서 성경을 들고 있다. 성경은 진리와 동일한 텍스트이고, 의미의 매개 없이 글자 그대로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번역 가능하다. 성경에서 번역은 단지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며, 충실성과 자유가 통합되는 행간 삽입의 형태로 원작과 번역은 하나가

2) *Ibid.*, pp.80-81.

된다. 성경의 행간 버전이 모든 번역의 원형 또는 이상인 것이다. 언어와 계시가 의미에 의해 나뉘어지지 않는 성경에서 의미에서 벗어나 무한한 운동을 하는 번역은 바로 원작과 동일한 버전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벤야민의 번역 이론은 일상적인 번역 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진다. 우선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의미의 전달에 대한 거부<sup>3)</sup>를 들 수 있다. 일상적인 번역 이론은 원작의 의미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 하는 방법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미의 전달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벤야민의 번역 이론에서는 의미나 정보, 혹은 주제를 전달하는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 그 무언가는 의도, 순수 언어, 또는 진리의 언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원작의 언어와 번역들의 언어가 파편으로서 서로 간 맞춰서 붙일 때 드러나는 그릇이 순수 언어이다. 순수 언어는 언어 상호간의 관계의 총합이며, 그 언어들은 서로 간 근친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근친성은 유사성에 의해, 즉 원작의 의미와 번역의 의미의 유사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언어들의 상보적인 조화가 순수 언어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간에 근친성을 가지는 것이다. 원작이 번역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순수 언어인 의도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원작은 번역되건 안 되건 간에 상관없이 번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번역 안에서 순수 언어를 함께 지향할 번역가능성을 내재적 속성으로 가진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리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접근 불가능했던 언어들의 화해와 성취의 영역”인 순수 언어에 이르는 번역은 이질적이며 낯설며 과잉이다. 주름들로 치렁치렁한 왕의 법복처럼 번역은 균열을 안고 있으며 이것이 원작과는 낯선, 이질적인, 과잉인 번역을 낳는다. 그렇다면 그릇으로 상징되는 순수 언어를 이루는 언어들은 서로 간에 근친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낯설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들의 상보적인 조화, 또는 화해 내지는 성취가 순수 언어의 영역이라고 할 때 이 영역을 이루는 언어들은 서로 간에 낯선, 그러면서 근친성을 가지는 것이다.

3) 벤야민은 사람이 단어를 이용하여 사물이나 사실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언어관을 부르주아적 개념이라고 「언어 일반과 인간 언어에 대하여」에서 비판하고 있다. W. Benjamin, “On Language as Such and the Language of Man,” *Selected Writings 1913-1926*, eds. Marcus Bullock and Michael W. Jennings, Vol.1, Cambridge: Harvard UP, 1996, p.65. 참조.

### III. 「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폴 드만의 해체주의적 해석

이와 같은 벤야민의 번역 이론은 순수 언어와 번역의 이질성이라는 상반되고 충돌적인 조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기원의 순수성을 믿지 않는 해체주의자들에게는 순수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관건이 되었다. 해체주의적 해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폴 드만의 해석은 벤야민의 번역 이론을 해체적으로 받아들일 때의 유익함과 난감함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번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차작업으로, 사후적 과제로, 원형 없는 파편의 이미지로 이해하는 폴 드만의 해석은 벤야민의 번역 이론을 해체주의적으로 전유한 전형을 보여준다.

폴 드만은 코넬 대학에서 있었던 한 강연에서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가 가지는 해체주의적 특징에 대해 강조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번역이 가지는 이차적인 성격이다.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가 보들레르의 시집에 대한 벤야민 자신의 번역의 서문으로 쓰였고 여기서 벤야민이 시인과 번역가를 다른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폴 드만은 “번역가는 정의상 실패한다”<sup>4)</sup>고 주장한다. 번역가는 결코 원작의 작가가 했던 것을 할 수가 없다. 어떠한 번역이든 언제나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다. 과제라는 뜻의 독일어인 “Aufgabe”가 과제라는 뜻 이외에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 폴 드만은 번역가란 “원작에 있었던 것을 재발견해야 하는 과제에 있어서 포기해야 하는”<sup>5)</sup> 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벤야민이 번역을 원작에 상응하는 시와 예술과는 다른 범주에 넣었지만 철학이나 문예비평, 역사와의 유사성을 언급한 것에 관련하여 폴 드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모든 활동들—비판철학, 문학 이론, 역사—은 그들이 그로부터 파생된 것[원작]을 닮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상호언어적이다. 그들은 원작에서 언어에 속한 것과 관련있지, 언어외적 상

4) Paul De Man, ““Conclusions” Walter Benjamin’s “The Task of the Translator” Messenger Lecture, Cornell University, March 4, 1983,” *Yale French Studies*, No. 69, 1985, p.33.

5) *Ibid.*

관물로서 의역이나 모방을 허용하는 의미와 관련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절합을 해체하고, 원작을 없던 일로 하며, 원작이 언제나 이미 절합해체되어있음을 폭로한다. 그들은 원작에 대해 이차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온 그들의 실패가 원작에 이미 있었던 본질적인 실패, 본질적인 절합해체임을 드러낸다. 그들은 원작이 이미 죽어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원작을 죽인다. 그들은 원작을 순수 언어의 관점에서 읽는데, 그것은 의미의 환상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언어, 또는 순수 형식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원작에 처음부터 있었던 절단과 탈정전화를 폭로한다.<sup>6)</sup>

폴 드만에 의하면 번역은 원작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이차적이며, 원작이 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를 한다. 그러나 이 실패는 원작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한다고 해서 만회되는 것은 아니다. 폴 드만은 실패를 번역의 특징뿐 아니라 원작의 특징으로 규정한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실패는 번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원작도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다. 번역의 언어가 이차적이라고 했을 때 이는 원작의 언어가 일차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번역이 이차적인 언어로써 파악하려고 하는 원작의 언어 역시 이차적인 언어이며 의미를 드러내는데 실패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번역은 이차적인 언어가 언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즉 의미 전달에 실패하는 언어라는 것을 폭로한다. 이는 벤야민이 단어와 문장을 구분하고 문자 그대로의 번역, 즉 충실성을 강조할 때 문장이 아니라 단어를, 의미가 아니라 문법(통사법)을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연결된다. 벤야민의 단어와 문장의 구분을 폴 드만은 문자와 단어의 구분으로 전유한다. 해체주의 언어관에서 문자는 의미가 없는 것, “asēmos”이다. 폴 드만은 벤야민의 단어와 문장, 또는 문법과 의미의 분열이 “문자의 물질성을, 즉 문자가 문장의 표면상의 안정된 의미를 와해하고 그 안에 의미가 사라지고 소실되어버리는 미끄러짐, 의미에 대한 모든 통제가 상실되는 미끄러짐을 도입하는 독립성을”<sup>7)</sup>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를 해체주의적으로 전유하는 폴 드만의 해석은 원작의 핵심에 자리잡은 언어의 이차성과 문자의 물질성, 그리고 안정된 의미

6) *Ibid.*, pp.36-37.

7) *Ibid.*, p.41.

를 와해하는 미끄러짐이라는 해체주의적 언어관을 잘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벤야민의 텍스트가 언제나 순조롭게 전유되는 것은 아니다. 폴 드만이 부딪친 문제는 순수 언어에 대한 것이다. 영어권 독자들이 주로 접근하는 벤야민의 텍스트는 해리 존(Harry Zohn)의 번역인데, 폴 드만은 이 번역본에서 순수 언어에 대한 다음의 단락을 문제 삼는다.

함께 붙여질 그릇의 파편들은 서로 닮을 필요는 없지만 세세한 점까지 서로 어울려야한다. 마찬가지로 번역은 원작의 의미를 닮는 대신에, 원작의 의미의 양태에 사랑스럽게 조목조목 결합하여 마치 파편들이 그릇의 일부 이듯이, 원작과 번역 둘 다를 더 큰 언어의 파편들로 인식되게끔 만든다.<sup>8)</sup>

여기서 폴 드만은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파편들이 함께 붙여진 그릇의 이미지로 원래의 순수한 언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릇과 같은 순수 언어가 있고, 모든 문학 작품과 그 번역이 그 원 그릇의 파편이라면, 특정 문학작품을 순수 언어의 파편으로 생각해야하고, “그렇다면 과연 벤야민의 진술은 근본적인 언어 통일체에 대한 종교적 진술”<sup>9)</sup>로 생각해야하지 않은지 폴 드만은 의아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오해할 수 있는 해석을 번역가의 미흡한 번역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존의 번역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파편들의 결합으로 드러날 그릇의 이미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그 대신 그가 참조할 번역은 캐롤 제이콥스(Carol Jacobs)의 번역인데, 벤야민의 텍스트에 대한 최초의 해체주의적 해석이라 할 그녀의 번역은 그릇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파편에 강조점을 둔다.

마치 그릇의 파편들이 서로 잘 맞물리기 위하여 가장 세부적인 면에서도 서로를 따라가야 하지만 서로를 닮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번역은 원작의 의미[Sinn]와 유사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랑스럽게 조목조목 그 나름의 언어로 원작의 의미의 양태[Art des Meinens]에 따라 형성하고,

8) W. Benjamin, *op.cit.*, 1968, p.78.

9) P. De Man, *op.cit.*, p.42.

파편들이 그릇의 부서진 부분인 것처럼 (원작과 번역) 둘 다를 더 큰 언어의 부서진 부분으로 인식하게끔 만든다.<sup>10)</sup>

제이콥스의 번역을 존의 번역과 비교하면서 폴 드만은 벤야민의 텍스트가 통일보다는 파편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존의 번역에서 “함께 붙여질”(to be glued together)이라는 용어 선택은 원래 존재했던 그릇, 즉 순수 언어를 상징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이콥스의 번역, 즉 “서로 잘 맞물리기”(to be articulated together)는 그러한 기원의 그릇을 상징하지 않는다. 또한 존의 번역인 “어울려야한다”(must match)와는 달리 제이콥스의 번역인 “서로를 따라가야 한다”(must follow one another)는 그릇이라는 은유보다는 파편들이 서로 따르는 환유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폴 드만은 주장한다. “우리는 사물(파편)들이 닮음에 의해 하나가 되는 은유적인 통일 패턴보다는 사물들이 따라가는 환유적이고 연속적인 패턴을 가진다. 그들은 서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따라간다. 그들은 은유가 아니라 이미 환유이다”<sup>11)</sup>라고 그는 말한다.

순수 언어를 그릇이라는 이미지로 상징하는 존의 은유적 번역보다 파편들을 이어나가는 제이콥스의 환유적 해석을 지지하면서 폴 드만은 결국 그릇 자체가 원래부터 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우리가 여기 가지는 것은 원초적인 파편화이다. 어떤 작품이건 이 순수 언어와 관련하여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며, 어떠한 공통점도 없고, 모든 번역은 원작과 관련하여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다. 번역은 파편의 파편이고 파편을 부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릇은 계속해서 부서지며 결코 그릇을 재구성하지 않는다. 최초로 그릇은 없었다. 혹은 우리는 이 그릇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자각도, 어떠한 접근법도 가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모든 의도와 목적에 대해 말한다면 그런 것은 결코 한 번도 없었다.<sup>12)</sup>

10) C. Jacobs, “The Monstrosity of Translation,” *MLN*, Vol. 90, N. 6, 1975, p.762.

11) P. De Man, *op.cit.*, p.43.

12) *Ibid.*, p.44.

이로써 폴 드만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드러난다. 처음부터 꺾편뿐이었고 원형은 없었다. 의미는 언제나 전치되며 원래 의도되었다고 간주되는 의미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므로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번역은 끊임없이 원작을 해체하고 부수고 탈정전화하면서 원작을 언제나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원작의 이동은 원작의 방랑, 일탈, 또는 망명이라고 할 만하지만, 사실 떠나왔을 고국이 없다는 점에서 진정 망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코 과거를 맞추지 못하는 언어의 이러한 일탈은 사실 모든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 언어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거주하는 영원한 분열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번역은 모든 언어의 특징, 영원한 분열을 상징한다.

이상에서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폴 드만의 해체주의적 해석을 살펴보았다. 폴 드만은 벤야민의 텍스트를 해체주의적으로 전유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순수 언어의 개념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언어의 무한한 분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벤야민의 텍스트를 완전히 포섭하는 해석은 되지 못한다. 벤야민의 글에서는 순수 언어가 적어도 존재론적으로 의미있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 문단의 성경에 대한 글이다. 만약 벤야민의 글이 그 앞에서 끝났다면, 즉 벤야민이 번역의 원형으로 생각했던 힐더린의 소포클레스 비극의 번역이 빠졌던 심연(abysse), 즉 의미는 심연에서 심연으로 끝없이 곤두박질하여 마침내 언어의 바닥없는 깊이에서 상실되어 버리는 침묵에서 끝났다면, 벤야민의 글은 해체주의적 해석에 온전히 몸을 맡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은 ‘액자 속의 액자’(mise en abyme)의 구조 속에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환유적 패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이야기와는 반전을 이루는 성경에 대한 마지막 단락으로 끝난다.

그러나 멈춤[심연으로 곤두박질치기의 멈춤]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게 유일하게 부여되는데, 성경에서 의미는 언어의 흐름과 계시의 흐름을 나누는 분수령이길 멈추었다. 텍스트가 진리나 교리와 동일한 곳에서, 글자 그대로, 의미의 중재 없이 “진실한 언어”가 되기로 되어 있는 곳에서, 그 텍스트는 완전하게 번역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번역은 단지 언어의 다양성

때문에 요청된다. 원작에서 언어와 계시가 아무런 긴장 없이 하나이듯, 번역은 글자 그대로의 충실성과 자유가 통일된 행간 버전의 형태로 원작과 하나가 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모든 위대한 텍스트가 그들의 잠재적 번역을 행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로 성스러운 글에서 사실이다. 성경의 행간 버전은 모든 번역의 원형이거나 이상이다.<sup>13)</sup>

모든 번역의 이상인 성경에서 번역은 원작과 관련하여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전혀 분열이 아닌 일체를 이룬다. 폴 드만은 순수 언어를 무한한 분열로 이해했지만, 「번역가의 과제」의 마지막 단락에서 원작과 번역이 일체가 된 성경이 번역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벤야민의 다른 글에서도 확인되는데, 1916년의 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에서 벤야민은 “모든 상위의 언어는 하위의 언어의 번역이고, 마침내 언어로 이루어진 이러한 운동의 통일인 신의 말이 궁극적인 명징함 속에서 펼쳐진다”<sup>14)</sup> 라는 문장으로 끝맺음하고 있다. 여기에서 순수 언어에 해당하는 신의 말이 번역의 운동 속에서 궁극적인 명징함 속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은 순수 언어가 존재론적으로 긍정적인 값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벤야민의 글이 초월적인 순수 언어나 신의 말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 언어는 원작과 번역의 언어가 파편으로서, 의미나 의도된 객체가 아닌 의도의 양태 속에서 짜 맞추어질 때 드러나는 것이고, 신의 말은 번역 운동이 끝없이 계속될 때 펼쳐진다. 벤야민의 순수 언어나 신의 말은 원작과 번역의 운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운동을 초월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순수 언어와 신의 말은 초월적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번역과 관계한다. 해체주의는 번역을 의미의 무한한 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의 환유적 속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벤야민의 번역은 사실 언어의 통일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순수 언어는 분명 언어의 통일성을 말한다. 그러나 그 통일성은 이질적인 번역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해체주의는 언어의 통일성을 거부한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원에 대한 향수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야민에게 언어의 통일성은 이질적인 번역의

13) W. Benjamin, *op.cit.*, 1968, p.82.

14) W. Benjamin, *op.cit.*, 1996, p.74.

존재론적 토대가 되는 실체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성과 이질성의 결합이라는 벤야민의 번역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체주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틀을 찾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은 바로 벤야민의 번역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 될 수 있다.

#### IV. 들뢰즈의 차이와 보르헤스의 동일성

벤야민의 번역과 관련하여 들뢰즈의 이론 중에서 참조할 사항은 『차이와 반복』의 2장 「대자적 반복」에서 “프루스트의 체험에 대한 주석”이란 제목으로 달린 각주이다. 여기서 프루스트의 체험이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르셀이 체험한 콩브레의 기억이다. 어른이 된 마르셀은 어느 추운 겨울 날 조가비 모양의 마들렌을 차에 적서 먹으면서 따뜻한 차와 빵조각이 혀에 대이자 알 수 없는 압도적인 회열에 감싸인다. 그 회열이 어디서 왔는지 의아해할 때 갑자기 기억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어릴 적 콩브레에서 레오니 고모가 주곤 했던 작은 마들렌과 라임꽃차의 맛이였다. 이러한 프루스트의 체험에서 사라진 현재(살았던 바 그대로의 콩브레)의 계열과 현행적 현재(어른이 된 지금)의 계열 사이에는 마들렌 맛의 유사성과 심지어 동일성까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가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계열을 관련짓는 것은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이다. 어른인 마르셀의 현행적 현재와 아이인 마르셀의 사라진 현재를 연관짓는 것은 차에 적신 마들렌의 맛의 동일성이 아니라, 그 맛이 봉인하고 있는 콩브레이다. “이 때 콩브레는 즉자 존재이고 순수 과거의 단편이다.”<sup>15)</sup> 이 단편은 “한때 있었던 현재”로도, 재구성되는 “현행적 현재”로도 환원이 안 되는 순수 차이이다. 순수 차이는 분화소(differenciator)로서 차이나게 하는 것, 동일성과 유사성을 결과물로 가지는 것이다. 콩브레는 순수 차이로서 두 계열을 공명하게 만드는 대상=x 즉 잠재적 대상이다.

다시 말해 마들렌의 맛이 환기하는 콩브레에서의 기억은 이 두 계열 사이

15) G. Deleuze, *Difference and Repetition*, New York, Columbia UP, 1994, p.122.

에 콩브레라는 잠재적 대상이 차이를 일으키는 분화소로서 봉인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잠재적 대상이 없다면, 사라진 현재와 현행적 현재는 원형과 모상의 관계가 되어 과거를 현재가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갓대는 모상이 원형을 얼마나 닮았는지, 즉 기억이 얼마나 과거를 정확히 재구성하는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원초적 장면 환상에서도 보듯 유아기의 기억은 사후성이 문제가 된다. 원초적 장면은 처음부터 실재한 경험이라기보다 어른이 되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기억이다. 프로이트가 원초적 장면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주체의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된 반면, 들뢰즈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 유년기의 사건은 분화소로 작용하는데, 그 분화소로 인해 우리가 어린 시절 알고 있던 어른들의 계열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다른 어른들과 더불어 속해있는 성인 계열이 소통하게, 즉 공명하게 되는 것이다. 두 개의 계열 사이에 분화소, 즉 잠재적 대상을 상정하면 어느 계열이 근원적인가 하는 물음은 무의미하다. 근원적인 것은 계열들의 차이이다. “차이야말로 유일한 기원이고 또 이 차이를 통해 차이소들이 모든 유사성에서 벗어나 서로 관계를 맺는 동시에 공존하게 되기 때문이다.”<sup>16)</sup> 요컨대 사라진 현재와 현행적 현재라는 두 현실적 계열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분화소로서의 잠재적 대상이며 이 현재들이 잠재적 대상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두 계열 사이에서 구성되는 것이 반복이다.

순수 차이로서의, 잠재적 대상으로서의 분화소를 중심으로 두 계열이 차이 나고 서로 간에 반복하는 이러한 모델은 벤야민의 번역 이론에 적용할 때 순수 언어와 이질적 번역의 관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원작과 번역은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두 계열은 순수 언어라는 잠재적 대상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소통한다. 순수 언어는 차이를 만드는 분화소이므로 원작의 언어와 번역의 언어는 언제나 차이나는 반복을 거듭한다. 순수 언어를 순수 차이로 보았을 때 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원의 문제인데, 순수 언어가 원작과 번역의 기원이라는 것은 순수 차이가 반복의 기원인 것과 같다. 동일성이나 유사성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스스로 차이나는 차이, 차이의 차이로서의 순수 차이는 기원이며 출발점으로, 오히려 동일성이나 유사성

16)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p.281.

은 그 결과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원작의 언어와 번역의 언어가 의미의 유사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순수 언어의 작동의 한 결과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번역은 원작을 앞에 두고 나름의 언어로 원작을 모사하는 작업이 아니다. 번역이 원작과 관계할 때는 순수 언어를 통해서 차이나는 언어를 구성하며 왕의 법복처럼 주름을 펼쳐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과 번역은 서로 이질적이면서 순수 언어 속에서 소통한다. 두 계열의 근친성과 낯설음은 순수 언어와의 관계를 통해 공존하는 것이다.

벤야민의 번역 이론에 대한 들뢰즈적 해석은 보르헤스의 단편을 통해서 점검해볼 수 있다. 보르헤스의 단편 「빠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번역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중 화자인 보르헤스가 “우리들 시대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일지도 모르는 작품”<sup>17)</sup>이라고 칭찬한 작고한 빠에르 메나르(물론 허구적 인물)의 작품은 바로 『돈키호테』 I부의 9장과 38장, 그리고 22장의 한 부분이다. 즉 메나르의 최고의 유작은 세르반테스의 작품의 두 장 전체와 한 장의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그는 또 다른 『돈키호테』를 집필하려는 게 아니었다—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가 집필하려고 했던 것은 『돈키호테』 그 자체였다. 물론 그가 절대로 원작을 문자 그대로 옮겨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경탄할 만한 야심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작품과 일치하는—단어와 단어, 그리고 행과 행—그런 몇 페이지를 쓰는 것이었다.<sup>18)</sup>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원작을 베껴 쓴 것으로 간주하겠지만 보르헤스는 메나르의 『돈키호테』에서 놀라운 충격을 감동과 함께 느낀다. 그는 메나르가 결코 건드려 본 적이 없는 『돈키호테』의 26장을 뒤적거리다가 <강의 요정들과 고통에 젖어 있고 물로 축축한 예코><sup>19)</sup> 라는 문장에서 메나르의 문체와 목소리 같은 어떤 것을 발견한다.<sup>20)</sup> 또한 I부의 28장에서 돈키호테가 문예에

1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픽션들』, 황병하 역, 민음사, 1995, p.74.

18) *Ibid.*, p.76.

19) *Ibid.*, p.78.

20) 이 대목은 벤야민이 원작이 번역을 요청하는 것은 “필연적”(apodictically)이라며,

비해 무예를 선호하는 논쟁을 펼치는 구절에서는 세르반테스는 제대 군인이었으므로 당연히 문예보다 무예를 더 옹호하겠지만, 버트란드 러셀과 『지식인들의 배반』과 동시대 사람인 삐에르 메나르의 돈키호테가 문예보다 무예를 지지하는 궤변의 제물이 된다는 것에 회한을 느낀다.<sup>21)</sup> 사실 세르반테스의 텍스트와 삐에르 메나르의 텍스트는 언어상으로는 단 한 가지도 다른 게 없이 똑같다. 그러나 삐에르 메나르의 언어는 세르반테스의 언어보다 거의 무한정 할 정도로 풍요롭다고 보르헤스는 말한다. 그 예로서 보르헤스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메나르의 『돈키호테』를 비교한다.

..... 진리, 진리의 어머니는 시간의 적이고, 사건들의 저장고이고, 과거의 목격자이고, 현재에 대한 표본이며 충고자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담관인 역사이다.  
- 『돈키호테』 제 1부 9장<sup>22)</sup>

17세기에 세르반테스가 적은 이 문장은 역사에 대한 단순한 수사적 찬양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똑같은 문장을 윌리엄 제임스와 동시대인인 메나르가 썼을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sup>23)</sup> 보르헤스는 메나르가 역사는 진리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역사를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며, ‘현재에 대한 표본이며 . . . 미래에 대한 상담관’은 실용주의를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 뿐 아니라 보르헤스는 메나르의 스페인어와 세르반테스의 스페인어 역시 명백한 문체적 차이를 가진다고 말한다. 세르반테스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으니 그의 스페인어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인인 메나르가 쓴

---

원작에 내재한 ‘번역가능성’을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W. Benjamin, *op.cit.*, 1968, p.70 참조 <강의 요점들과 고통에 젖어 있고 물로 축축한 예코>는 메나르가 번역하지 않았던 문구이다. 그러나 보르헤스는 여기서도 메나르의, 즉 번역자의 목소리를 느낀다고 쓰고 있다. 이는 번역가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원작이 번역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Ibid.*, pp.83-84.

22) *Ibid.*, p.85.

23) 이는 일관성 쌍둥이가 유전자가 같지만 다른 차이를 무수히 만드는 것이나, 겹쳐있는 현이 울리면서 공명하는 소리를 무수히 다르게 만드는 것과 같다. 동일하다고 생각된 것이 무수한 차이를 만든다.

스페인 고어체는 작위적인 흔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메나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책을 외국어로 다시 쓰기 위해 온갖 노고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바쳤지만 중국에 가서는 수천 페이지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모두 찢어버린다. 이에 보르헤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이 『돈키호테』 <마지막 결정판>을 일종의 양피지사본으로 보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 양피지사본 안에서는 우리들의 친구가 썼다 지운 글의 흔적들이—희미하기는 하지만 해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어렴풋이 들여다보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단지 제2의 삐에르 메나르만이 자신의 선행자가 했던 작업을 역으로 올라가 이 트로이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복원시킬 수 있으리라..... 24)

이상과 같은 보르헤스의 단편에서 삐에르 메나르는 일상적인 번역과는 전혀 다른 번역을 시도한다. 일상적 번역에서 번역가가 원작의 외국어를 번역가의 모국어로 옮기는 것이라면, 메나르는 모국어인 붙어는 제쳐두고, 외국어인 스페인어를 배워서 외국어를 같은 외국어로 번역한다. 또한 일상적 맥락에서 번역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원작과 차이를 보이지만, 메나르의 번역은 원작인 세르반테스의 작품과 똑같은 단어와 통사법과 구두법을 쓴다. 그렇다면 메나르의 글을 번역이라 할 수 있는가? 똑같은 작품을 똑같이 베껴내는 것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르헤스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번역의 전도된 형태를 보지만 이 역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들뢰즈의 이론에서 보았듯이, 원작과 번역의 두 계열은 순수 차이에 의해 차이나기 때문이다. 작중화자인 보르헤스는 똑같은 텍스트라 할지라도 세르반테스의 글과 메나르의 글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며, 심지어 세르반테스의 글에서조차 메나르의 문체와 목소리를 발견한다. 사실 보르헤스의 단편은 들뢰즈의 차이의 이론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차이의 운동을 보여준다. 들뢰즈는 동일성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서 동일성이 효과로서 나온다고 주장한데 반해, 보르헤스의 단편은 동일성이 무한한 차이를 함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메나르의 번역의 결정판의 이미지인 양피지사본은 동일한 언어가 포함된

24) *Ibid.*, pp.87-88.

무수한 차이를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 누군가 제2의 메나르가 되어 메나르의 『돈키호테』를 다시 쓴다면 그 또한 동일한 언어 속에서 다른 세계, 다른 문체, 다른 언어를 기입하게 될 것이다.

## V. 결론

이상에서 벤야민의 번역 이론과 그에 대한 폴 드만의 해체주의적 해석과 들뢰즈의 순수 차이의 이론과 보르헤스의 번역에 대한 단편을 엮어보았다. 벤야민의 번역 이론은 단지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용적 차원보다는 언어 일반에 대한 이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후대 이론가들의 집중된 관심을 받았으며, 1975년 제이콥스가 해체주의적 해석을 시도한 이후 해체주의자들에게 꾸준히 전유되었다. 본고는 이에 벤야민의 번역에 대해 들뢰즈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해체주의적인 해석과 거리를 두면서, 벤야민의 파악하기 힘든 개념인 순수 언어를 순수 차이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벤야민의 번역 이론에 대한 들뢰즈적인 해석을 검증하기 위해 보르헤스의 단편 「뻬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를 살펴보면서 동일성이 순수 차이로 작용하는 역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문의 시도는 어떻게 보면 그 나름으로 번역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벤야민의 이론을 해체적으로 번역하고, 또 들뢰즈적인 차이의 운동으로 번역하고, 보르헤스적인 전도된 번역으로 읽어보았다. 이제 남은 일은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의 마지막 단락인 성경의 번역을 보르헤스적인 해석으로 번역하는 일이다. 벤야민은 성경을 이상적인 번역으로 제시하면서 원작과 번역은 글자 그대로의 충실성과 자유가 통일되어 있는 행간 버전의 형태로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보르헤스의 「뻬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는 원작과 번역이 똑같은 버전으로 된 텍스트를 주제로 하고 있다. 벤야민은 원작과 번역이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말하는데, 보르헤스의 텍스트는 이미 원작과 번역이 하나가 된 경우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르헤스의 단편은 원작과 번역이 동일할 경우, 그 사이에

서 터져 나오는 차이는 무한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원작과 번역이 하나가 된 성경의 행간 버전은 무수한 해석의 차이를 포함한다. 동일성은 순수한 차이의 기계가 된다. 해체주의에서 동일성은 잃어버린 기원이고, 들뢰즈에게서 동일성이 차이의 효과였다면 보르헤스에서 동일성은 순수 차이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생산해내는 기계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벤야민이 이상적인 번역으로 내세운 성경은 바로 무한한 차이를 창조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픽션들』, 황병하 역, 민음사, 1995.

BENJAMIN, Walter,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1968.

\_\_\_\_\_, "On Language as Such and on the Language of Man," *Selected Writings, 1913-1926*, Eds. Marcus Bullock and Michael W. Jennings. Vol.1. Cambridge: Harvard UP, 1996.

DELEUZE, Gilles, *Difference and Repetition*, Paul Patton, New York, Columbia UP, 1994.

DE MAN, Paul, "'Conclusions' Walter Benjamin's 'The Task of the Translator' Messenger Lecture, Cornell University, March 4, 1983," *Yale French Studies*, No. 69, 1985.

JACOBS, Carol, "The Monstrosity of Translation," *MLN*, Vol. 90, N. 6, 1975.

❖ ABSTRACT

The Problem of Pure Language in Walter Benjamin's "The Task of the Translator" from the Perspectives of Paul De Man, Gilles Deleuze, and Jorge Luis Borges

Kim, Jiyoung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pure language introduced in Walter Benjamin's "The Task of the Translator" and looks at various perspectives on this concept represented in theories of Paul De Man and Gilles Deleuze and a short story of Jorge Luis Borges. According to "The Task of the Translator," pure language is defined as a vessel of which fragments are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Just as fragments are part of a vessel, so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are fragments of a greater language, which is pure language. On the other hand, De Man, from a deconstructive criticism, says that pure language does not exist except as a permanent disjunction, which inhabits all languages as such, and that any work is totally fragmented in relation to this pure language and every translation is totally fragmented in relation to the original. While De Man consider pure language incorporeal, Deleuzian interpretation regards it as a virtual object or differentiator in relation to which the two series of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coexist and resonate. Finally in Borges's "Pierre Menard, Author of *the Quixote*" Menard attempt to translate Cervantes's *Don Quixote* identically in every detail. By showing a case in which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are the same, Borges raises a question what would take place in relation to pure language if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were identical. In Deleuze, identity and resemblance are the result of a differentiator, but in Borges, identity is a differentiator which produces differences. If we apply this logic to the last paragraph of "The Task of the Translator," we can say the interlinear version of Scriptures, as the prototype or ideal of all translation, in the form of which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must be one, is a differentiator, an endless difference-making machine.

---

**Key Words**

벤야민, 「번역가의 과제」, 순수 언어, 폴 드만, 들뢰즈, 『차이와 반복』, 보르헤스,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Benjamin, “The Task of the Translator”, pure language, Paul De Man, Deleuze, *Difference and Repetition*, Borges, “Pierre Menard, Author of *the Quixote*”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